

【 국내금융 뉴스 】

공자위, 제 2금융권 부실 PF 대출채권 매입 의결

- 이달 초 정부는 해운사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‘해운산업 동향 및 대응방안’을 발표하였으며,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산관리공사(이하 캠프)가 운영하는 해운·조선업 구조조정용 선박펀드 방식을 통해 18번째 선박을 매입함.
- 기존의 선박펀드는 1차 매입신청을 받은 72개 신청 선박 중 17척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후 추가로 2척의 매입 여부에 대해 논의, 나머지 한 척에 대해서도 매입을 승인할 방침이라고 밝힘.
 - 1차 매입 대상 중 이미 매입이 완료된 17척 중 16척은 한진해운 선박이며, 앞으로 선박구조조정기금으로 매입 승인할 선박은 현대상선 소속의 컨테이너선으로 알려짐.
 -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이번 제7차 회의에서 이 같은 ‘선박인수를 위한 캠프 글로벌 18호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출자’ 등의 안건을 보고 받고 이를 심의·의결한 것임.
- 구조조정기금으로 매입한 유조선 1척의 자금은 선순위대출 금융기관 50%와 구조조정기금 40%가 선가의 90%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해운사 선급용선료 10%로 구성됨.
- 구조조정기금으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보유한 PF(Project Financing) 대출채권 595억원과 보험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의 PF 대출채권이 2,210억원을 매입기로 하였으며, 구조조정기금 지원 규모는 매입가격률 등에 따라 추후 결정될 예정임.
 - 한편, 은행 등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은행 캠프 민간투자자 등이 합작해 유동화전문회사(Joint Venture)를 설립하고, 이 합작회사가 부실채권을 인수하는 부실채권 인수계획도 승인함.
- 공자위에 따르면 당초 계획은 올해 19척의 선박을 매입하는 것이었으나 나머지 한 척의 실사 등에 관한 시간상의 문제로 다소 지연된 것이라며, 늦어도 내년 초까지 1차 (19척) 선박 매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임.
- 동시에 2차 선박 매입과 관련해서는 지난 13일부터 별도의 접수기간을 두지 않고 수시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며, 캠프 자회사인 캠프선박운용 내 선박매입심의위원회가 적정성을 심사한 후, 공자위의 의결을 통해 최종 승인 된다고 밝힘.

(제7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개최결과,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운용기획팀, 11/25)